

<미디어에 나타난 ‘-었-+-어서’ 표현 연구>에 대한 토론문

홍미주(경북대)

구어에서 빈번히 실현되고 있는 ‘-었어서’ 표현의 실제 사용례와 관련된 표현을 함께 살피고자 하는 논의입니다.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치부하기보다 현재 화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의 하나로 그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고 변화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현재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단면을 보여주는 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.

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.

1.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

1)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대상으로 ‘-었어서’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있습니다.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이유로 구어적인 성격을 지닌 미디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‘구어적’의 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또한 수많은 블로그 중 연구 대상이 된 블로그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.

2) 블로그에 나타나는 ‘-었어서’ 표현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. 어떤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였고, 어떤 방식으로 ‘-었어서’ 표현을 수집하였는지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.

3) ‘구어적인 성격을 가진 미디어’의 글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어와 문어에서의 ‘-었어서’ 표현의 양상이 다르다는 데서 출발했을 것입니다.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발표자께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포착한 구어와 문어에서의 ‘-었어서’ 표현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

2. ‘명사+었어서’

발표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하는 ‘-었어서’의 사례를 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. 명사에 결합하는 ‘-었어서’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.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나옵니다.

a. 워낙 잘 먹는 아기였어서 이유식을 4개월째 시작을 할까 했는데요.

(https://blog.naver.com/im_lime/222794651077)

b. 아기고양이었어서 아기고양이 키우기 모드 풀가동 이었었는데 그중 필수 코스가 고양이 예방접종 이었습니다.(<https://blog.naver.com/sjej0524/222219846184>)

c. 코로나 초창기였어서 그런지 줄이 꽤 길었습니다.

(<https://blog.naver.com/thinkingperson/222788877216>)

‘명사+었어서’의 예도 추가하여 ‘-었어서’가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, 명사 등에 두루 결합

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.

3. ‘-겠어서’ 표현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의

‘-었어서’뿐만 아니라 ‘-어서’가 ‘-겠-’과 결합하는 예도 널리 관찰됩니다.

- a. 작사가가 되어야겠어서 작사학원을 알아봤다.
(<https://blog.naver.com/qkqh266/222436712798>)
- b. 차가 있어야겠어서
(<https://blog.naver.com/geamong1/222289082831>)
- c. 맛있는거 이왕 더 맛있게 먹어야 겠어서 에어프라이어 돌리기로 해요.
(<https://blog.naver.com/goch61>)

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것과 함께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‘-어서’가 시제 표현과 결합하는 양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. 이런 논의가 추가된다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.

4. 한국어교육과의 연계

발표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『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』의 용법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여, 한국어 학습자에게 ‘문법적이지 않은’ ‘-었어서’ 표현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발표자께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이 ‘문법적이지 않은 표현’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 혹 평소에 생각해 본 것이 있으신지요?

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